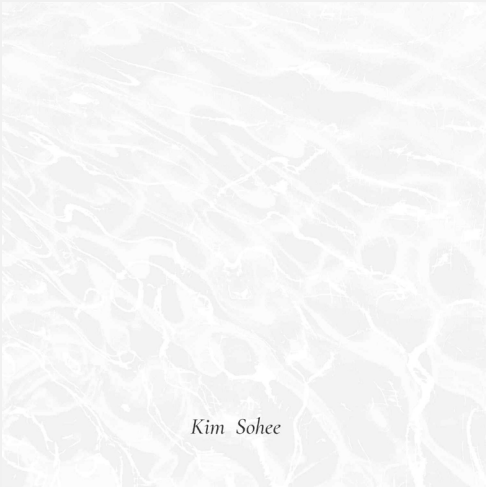


**미래를
뛰어넘다**



Kim Sohee

미래를 뛰어넘다

화가로 움트기 위해 과거 명화를 배우고 현재의 미적 감성을 사색했던 시간.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야기에 관심을 쏟았다.

아득한 과거의 기억,

오늘 이 순간의 찢릿한 감각,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디지털 문명 속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뿐이었다.

인공지능이 지닌 잠재적 파워는 과거 신이 지녔던 초월적 존재감에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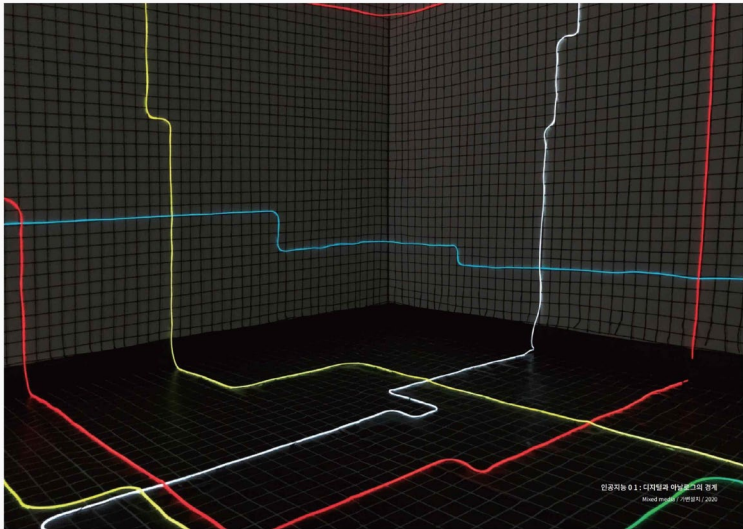
디지털 세계로 급속히 변이되는 현실에서 붓을 잡은 작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예술가의 상상력은 디지털 세상 속을 유영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 있다면 좋겠다.

볼 수 없다면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인공재능 01: 디지털 아날로그의 경계

Mixed media / 가변설치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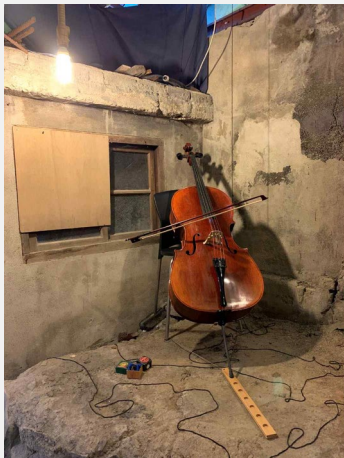
현대에 이르러 컴퓨터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즉, 이미지만 보았을 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시대이다. 디지털에는 시공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실재하는 듯 하나 표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과 현실 두 가지가 혼재한다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공간 안에 3차원의 가상 그리드를 만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를 구현함으로써 가상세계에 현실감을 더하였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인간은 점차 기계화 되어가고, 동시에 기계는 점차 인간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면서 우리는 때때로 인간성을 쉽게 잃어버리곤 한다. 작품에서는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전히 그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실로 한줄 한줄 그려 넣은 그리드는 인간의 감각으로 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는데, '그리드'라는 디지털적 요소를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내면서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근본의 인간성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현실과 미래, 인간과 기계사이의 경계를 실과 네온으로 나타내었으며,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공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Sound from future, Variable size, Mixed medi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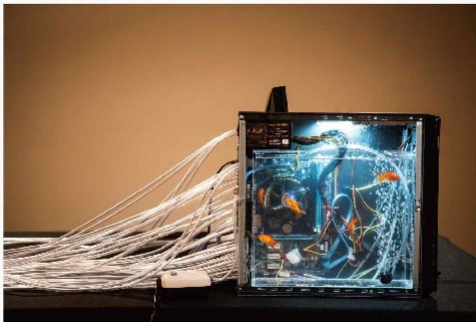


가상세계는 본래적으로 현실에 기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세계이다. 결국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세계가 모태인 것인데, 늘 그랬듯 인간은 현실을 초월하려는 욕망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듯 인간은 기계와 조물주/피조물의 관계 위에 서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신체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했던 인간의 오랜 염원이 그 목표에 거의 가까이 다가간 듯도 하다.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경험을 더욱 사실감 있게 인위적으로 극대화시키거나 현실에서는 감히 느끼지 못할 감각을 찾아 만들고 유희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시공간의 제약도 없고, 누구나 단숨에 이 창에서 저 창으로 쏘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이미지들의 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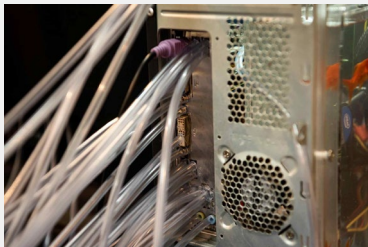
김소희 작가는 현대사회의 인간이 가진 실존적 외로움을 탐구하는 작가다. 이번 작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첼로와 전깃줄, 그리고 첼로가 내는 목소리이다. 첼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손과 다리로 지탱하며 연주하는 악기이다. 그런데 의자 위에 첼로를 연주해줄 사람은 없고 악기만 덩그러니 남아 저 혼자 외로이 노래하고 있다.

첼로의 소리가 사람의 음성과 가장 가깝고 또한 그 크기 때문인지 인체의 형상과도 닮았다는 악기적 속성을 나열하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 인간의 운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첼로는 스스로 연주할 수 없기에, 흘러나오는 소리는 작가의 손을 경유하여 일정한 조작을 거친 인터넷 속 익명의 연주 소리일 것이다. 그저 익숙하게 들릴 뿐인 첼로의 음들은 그 태생 자체가 이미 원본을 알 수 없고 출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상의 이미지다. 아마도 작가가 우리 앞에 작품으로 제시하기 전까지 이미 수많은 n번의 걸러짐을 거쳤을 것이다. 여기사 끝이 아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디지털 신호음이 저변에 깔려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는 자그마한 불순물처럼 희미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중후한 첼로의 음들 사이에 끼인 기계음은 듣기에 그다지 큰 거부감이 없는 잡음 정도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다. 첼로와 디지털의 신호가 조화로워서라기보다 그것의 소리가 우리의 신체에 보철처럼 달라붙어 어느새 새로운 감각이 되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대의 주인공은 첼로가 아니다. 조명은 오히려 전깃줄들을 비추고 있다. 전깃줄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무질서하게 얹혀있는 전깃줄들은 스스로 무한히 이미지를 배태하는 자족적인 가상세계를 닮았다. 특히 동시대의 이미지들은 자기학대에 가까운 폭발적인 자가생식을 멈추지 않는다. 덩굴처럼 얹혀있는 전깃줄들이 목적 없는 기계처럼 담장 너머로 그저 무한히 자신을 뻗어나가는 것처럼, 오직 재생산과 응용, 확장과 연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깃줄은 부유하는 빈 껍데기이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그것만이 첼로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유일한 매개체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이 경계 없이 뒤섞여 있는 시대의 자화상에 닮았다. 김소희 작가는 가상세계의 근원적인 요람이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려 한다. 가상과 현실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무리 가상세계라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주체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노래할 수 있으나 첼로는 노래할 수 없다. 첼로를 인간에 빗댄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첼로 대신 사람이 앉아있었다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느샌가 현실을 덮고서 노래하는 즐거움을 가상세계의 기호들과 맞바꿔버린, 그래서 현실이라는 대지 위에 서서 스스로 노래하는 것을 단념해버린 인간과 같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첼로가 된 인간은 그림에도 노래한다. 디지털의 기호가 섞인 지직거리는 육성으로, 영혼으로.



Message from future, Variable size, Mixed media, 2021.



「 Reflection On Humani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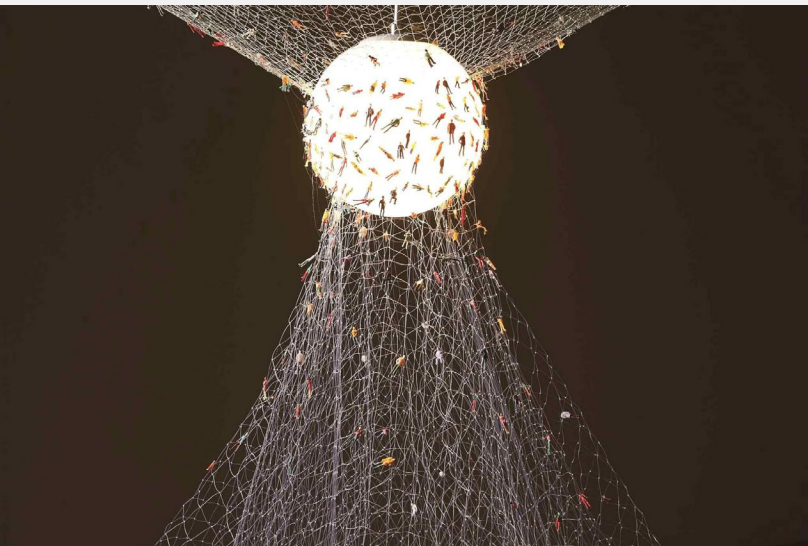
In a society led by cutting-edge digital media technology, the whole world is connected as one through the Internet. Human-to-human and human-to-artificial intelligence are connected by dry fiberglass wires. Although we exchange a massive amount of information through those connections in our daily lives, while doing so, unfortunately it is often witnessed that we end up losing humane emotions and personality as we tend to get obsessed only with knowledge. Besides,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somehow seem to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human and the mechanical. What if it would not create anything any longer other than what is related to intellectual ability? It may lead to the so-called "Perfect Society". When we continue to pursue only the most intellectually superior ones even in the future, only poor-minded humans will remain, who live by depending solely on the digital environment.

「 The lines that connect the affection 」

The works examine the true meaning of life through lines. Plants don't need any intelligence to sustain life. They simply secure basic nutrients by receiving water through a hose in order not to lose their vitality. Hopefully we might be able to exchange vitality as well through the Internet network, rather than just seeking for something related to knowledge and intelligence.

In a society where overemphasized is importance of knowledge,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will be arouse people's attention to the value of life. Isn't it obvious that people can get easily driven away from humanity when they exchange only flat knowledge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era of turmoil, we need to reflect progressively on the value of life and the preciousness of the earth on which we are standing. It is inevitable to think about the role of human beings and the values that constitute life that are crumbling with the development of machine civilization, and about what is the uniqueness of human beings (hum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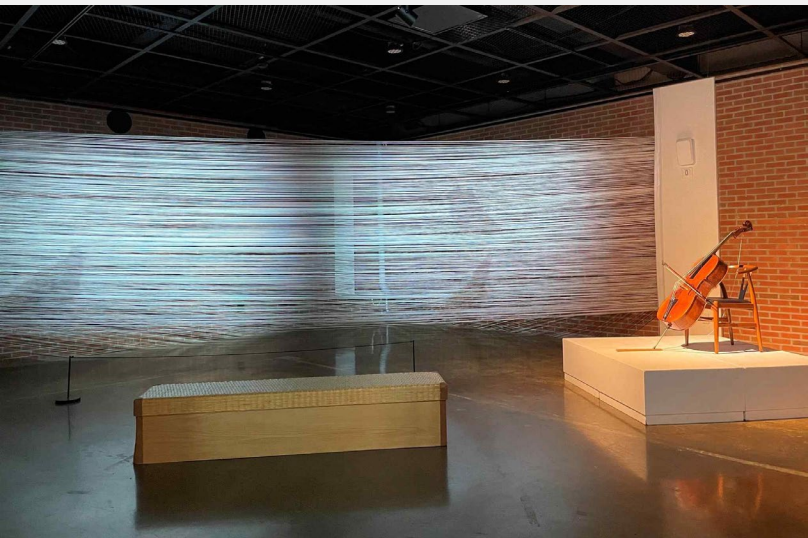


Message from future, Variable size, Mixed media, 2021



동시대 우리 주변의 이미지들은 폭발적인 자가생식의 특징을 보인다. 재생산과 응용 안에서 마치 촘촘한 거미줄처럼 확장과 연장을 이어나간다.

가상공간의 확장 안에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및 상실을 종종 목격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삶을 구성하는 인간의 가치와 위치에 대해 물음을 던져보고자 한다.



X-Vision, Variable size, Shadow on thread, 2022



X-Vision

Threadonshadow/실,첼로,의자,영상,사운드

Variablesize 2022



디지털 세계에는 암호화된 기호체계와 인간을 대신하는 아바타 등이 얹혀(메타버스 형식의) 새로운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세속적인 시간, 공간의 개념이 송두리째 부정되죠. 상대적 크기 개념이나 전후 시간 개념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넘나드는 시공 개념 속에 각종 기호와 아바타가 공존하며 조화와 부조화를 만들어 가리라 상상합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인터넷 속 디지털 세계의 지성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일 수도, 인간이 아닐 수도 있죠. 물고기 모양일 수도 있고 새 모양 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작품은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조형으로 표현하고 관람자들에게 그 곳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상의 세계를 현실 조형 언어로 치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 속을 유영합니다. 제 작품 속에서 비가시적 존재 또는 비존재에 대해 인식하며 디지털 시대 상황에서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경력사항

	이름	김소희	영문	Kim so hee
	주민번호	980418 - 2	한문	金小曦
	휴대폰	010-5870-1166	학력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부 서양화전공
	E - mail	sincere2u_k@naver.com	SNS	insta@ sohee_a_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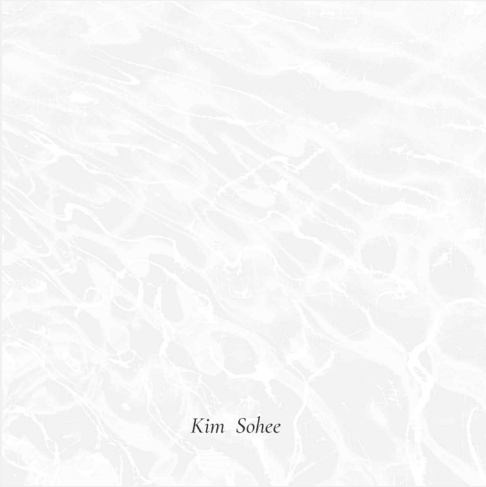
기간	전시명	참여단체 및 주최 주관	기관 및 장소
2024	2024 아시아프 ASYAAF	조선일보	서울 옛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2023	시간의 발자취	아트그룹 타래	담양 소아르떼 갤러리 3관
	Antifragile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G&J갤러리
	발견! 내 안의 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미술관 2 전시
	미지의 생명력	대인시장 레지던시 링크2기	대인시장 한평갤러리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영미술관	광주 드영미술관
	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	담양군 문화재단	담양 담빛예술창고
	금수예술장	계림보부상	광주 금수장호텔
	주안미술관 라운지; 사_이	주안미술관	광주 주안미술관
	알 수 없는 전시 : Byound the veil	아트그룹 타래	광주 호랑가시나무 베이스폴리곤
2021	New vibe	서양화전공 졸업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미술관
	페르소나	아트그룹 타래	광주 뽕뽕브릿지
	나는 청년 예술가 입니다	MAXI ART	광주청춘 발산마을 일원
	글쎄, 이걸 어떻게 말하나	미로마켓 온앤오프	광주 향담갤러리
	크고 아름다운 깊이	미로마켓 온앤오프	광주 갤러리 관선재
	나선		조선대학교 미술관
	불을 지피다	아트그룹 타래	조선대학교 미술관
2020	잇다		광주 소암미술관
	전시보고:13th 광주 비엔날레	장동콜렉티브	광주 뽕뽕 브릿지
	NAVIGATE: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트그룹 타래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59sec	LapiA	광주 발산마을 LAG
	아름다운 동행 展		광주 광산세무서 갤러리 동행

2019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토브아트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획전시실(3층)
	다시 점	아트그룹 타래	조선대학교 미술관
	동지展	아트그룹 타래	광주 갤러리 헤움
	In search of lost time: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화순 소아르 미술관
	Alter Ego:또 다른 자아		광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Art O'clock:예술하기 좋은 시간	아트그룹 타래	조선대학교 미술관

레지던시 및 기타사항

기간	기관	장소
2023.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프로그램 링크 2기	광주
2022	광주 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레지던시 입주작가	광주
2020	문화예술단체 LapiA 레지던시 입주작가	광주
2019~2020	아트그룹 타래 회장 역임	광주
2019. 03. ~2020. 02.	조선대학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3기	광주
2019	문화예술단체 LapiA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나는 예술여행 'Can! Bus!' 참여작가	광주
2018. 11. ~2019. 02.	조선대학교 SNS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그림 콘텐츠 제작"	광주



Kim Sohee